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소영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Impact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So-Young Pa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 약 간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03명이며 자료분석 방법으로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돌봄 능력( $\beta=0.39, p<.001$ ), 자기효능감( $\beta=0.28, p<.001$ ), 셀프리더십( $\beta=0.23, p<.001$ ), 성별 ( $\beta=0.14, p<.01$ )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성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 및 정서적 측면의 균형을 갖춘 융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Abstract Since nursing is carried out in a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nursing subjects in a social context,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act of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and self-efficacy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3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a university.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 that caring ability( $\beta=0.39, p<.001$ ) self-efficacy( $\beta=0.28, p<.001$ ), self-leadership( $\beta=0.23, p<.001$ ) were the most consistent predictors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xplained 53.0%.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n autonomy-based program and feedback system and to develop a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o balance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당면

하게 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종합·추론하여 적용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효과적, 효율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9.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Pak(09525@shinhan.ac.kr)

Received September 17, 2019

Revis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을 받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주로 인지적 과정으로 보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등 중추적인 사고영역을 강조해왔고[1], 그 효과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간호학 분야에서도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간호학 학습 성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적응적인 기능만 뿐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본질과 문제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즉,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확인하고 발견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2]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사회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과정은 사회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과정에는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동기, 그리고 정서를 다루지 않고서는 개인의 문제해결 행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3].

셀프리더십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통제,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리더십[4]으로 자기관리와 내적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학습성과,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및 성향, 임상수행능력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5,6]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흥미와 적응과 같은 동기 유발과 대처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확인하고 발견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봄은 의학과 간호학을 구별하는 본질적 요소[7]이며 간호제공자의 정서나 관심 뿐 아니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구체적 행위로, 간호제공자의 정서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대상자 중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간호 대상자와 연결되고 함께 있어주는 돌봄 관계 속에서 실현[3]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는 돌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 능력도 간호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조직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신념[8]이

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위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9,10]은 주로 학업성취도, 학과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능력 및 성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간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에게는 문제에 대한 분석, 종합, 추론을 통한 정확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판단한 사항을 사회적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처방식 통해 해결해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 기능(adaptive functioning)과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해결에서의 결함은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등 사회적 부적응 현상[11]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조직생활에서 직무소진, 이직성향,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현장에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주로 문제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태도, 동기, 정서적 측면과의 관련성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과 같은 태도 및 동기, 정서와 관련된 능력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융복합적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편의추출한 경기도 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 203명이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9개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66명 이었고, 본 연구 대상자수는 203명으로 최소 표본 기준을 충족하였다.

자료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한 설명 후 학생대표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 연구철회 가능성을 명기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기호화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은 2019년 3월 18부터 3월 22일까지 240부를 배포하여 총 210부가 회수(87.5%)되었으며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 5부, 부정확한 응답 설문 2부를 제외한 20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Manz[13]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도구를 Kim[14]이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별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돌봄 능력(Caring Ability)

돌봄 능력은 Coates (1997)의 돌봄효능감 척도

(Caring Efficacy Scale, Form B)를 Lee와 Pak (2016)이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번역한 도구[15]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Pak (2018) 연구[16]에서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Maydeu-Olivares와 D'Zurilla (1996)가 개정한 문제해결도구(SPSI-R)를 Choi (2002)가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번역한 도구[3]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 PPO) 5문항, 부정적인 문제지향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NPO) 20문항, 합리적인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 RPS) 10문항, 충동/부주의 스타일 (impulsive/careless style; ICS) 10문항, 회피 스타일 (avoidance coping style; AS) 7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부여되며 사회적 문제해결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2013)의 연구[17]에서는 Cronbach'  $\alpha = .82$ ,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지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PPO/5+RPS/20+(40-NPO)/10+(40-ICS)/10+(28-AS)/7$$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과 Cha(1996)이 개발하고 Kim(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 난이도 선호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16) 연구[19]에서는 Cronbach'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셋째, 셀프 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셀프 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셀프 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203명 중 80.3%는 여자이고, 학년은 1학년이 14.8%, 2학년이 26.1%, 3학년이 32.5%, 4학년이 26.6%였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52.2%, 봉사기간은 1개월 미만이 2.5%, 1년 이상이 37.9%였다. 가족과 동거여부는 85.7%가 동거

Table 1.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Categories	n (%)	Self-leadership M±SD	Caring ability M±SD	Self-efficacy M±S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M±SD
<b>Gender</b>					
Male	40(19.7)	3.59±0.43	4.04±0.37	3.54±0.50	12.74±2.39
Female	163(80.3)	3.54±0.49	4.08±0.41	3.35±0.51	12.17±2.22
t (p)		0.42(.651)	-0.61(.542)	2.13(.034)	1.43(.155)
<b>Grade</b>					
1 <sup>a</sup>	30(14.8)	3.64±0.50	4.25±0.37	3.36±0.50	12.91±1.74
2 <sup>b</sup>	53(26.1)	3.52±0.41	3.98±0.43	3.36±0.54	11.70±2.38
3 <sup>c</sup>	66(32.5)	3.58±0.52	4.07±0.35	3.38±0.47	12.32±2.31
4 <sup>d</sup>	54(26.6)	3.50±0.49	4.06±0.43	3.39±0.51	12.47±2.25
F (p) Scheffe		0.71(.548)	2.94(.034) a<b	0.27(.850)	2.11(.100)
<b>Religion</b>					
Yes	97(47.8)	3.52±0.46	4.09±0.38	3.37±0.48	12.20±2.02
No	106(52.2)	3.59±0.50	4.05±0.42	3.41±0.53	12.37±2.46
t (p)		0.46(.342)	0.55(.585)	-0.59(.553)	-0.55(.585)
<b>Service period (month)</b>					
< 1	34(16.7)	3.48±0.51	3.99±0.36	3.35±0.53	11.98±2.18
1≤-<3	47(23.2)	3.55±0.43	4.04±0.42	3.41±0.54	12.00±2.28
3≤-<6	32(15.8)	3.46±0.52	4.10±0.43	3.38±0.53	12.41±2.35
6≤-<12	13(6.4)	3.39±0.61	4.05±0.45	3.33±0.47	12.24±2.34
≥12	77(37.9)	3.66±0.44	4.13±0.39	3.42±0.49	12.55±2.25
F (p)		1.87(.117)	0.85(.493)	0.16(.959)	0.64(.634)
<b>Living together</b>					
Yes	174(85.7)	3.80±0.51	4.07±0.41	3.41±0.51	12.28±2.32
No	29(14.3)	3.92±0.57	4.09±0.33	3.30±0.51	12.34±1.88
t (p)		0.35(.731)	-0.26(.794)	1.00(.320)	-0.14(.893)
<b>Number of family</b>					
2	5(2.5)	3.17±0.38	3.97±0.42	2.99±0.40	10.61±1.97
3	20(14.8)	3.52±0.48	4.13±0.36	3.44±0.52	12.55±1.99
4	107(52.7)	3.59±0.48	4.07±0.41	3.39±0.50	12.29±2.39
5	54(26.6)	3.53±0.47	4.05±0.42	3.42±0.54	12.03±2.13
6≥	7(3.4)	3.61±0.50	3.99±0.30	3.30±0.36	12.17±2.25
F (p)		1.09(.361)	0.36(.838)	0.92(.451)	1.09(.365)

상태였으며 가족 수는 4명이 52.7%, 5명이 26.6%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점(±0.48)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보상(3.98±0.63)이 가장 높았고, 자기비판(3.33±0.76), 건설적 사고(3.33±0.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돌봄 능력은 6점 만점에 평균 4.07점(±0.40)이었다.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39점(±0.51)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조절(4.23±0.57), 과제난이도 선호(3.07±0.79), 자신감(2.87±0.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12.29점(±2.2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4점 만점에 합리적 문제해결(2.57±0.45), 긍정적 문제 지향(2.74±0.51), 부정적 문제 지향(1.76±0.77), 회피 스타일(1.65±0.71), 충동/부주의 스타일(1.62±0.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203)

Variables	M±SD
Self-leadership	3.56±0.48
Self-expectation	3.54±0.71
Rehearsal (practice)	3.67±0.68
Self-goal setting	3.49±0.69
Self-reward	3.98±0.63
Self-criticism	3.33±0.76
Constructive thought	3.33±0.48
Caring Ability	4.07±0.40
Self-efficacy	3.39±0.51
Self-confidence	2.87±0.83
Self-regulation	4.23±0.57
Preferred Difficulty	3.07±0.79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12.29±2.26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2.74±0.52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1.76±0.77
Rational Problem Solving	2.57±0.45
Impulsive/Careless Style	1.62±0.60
Avoidance Coping Style	1.65±0.70

###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종교, 봉사기관, 가족과의 동거여부 및 가족 수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돌봄 능력은 1학년이 2학년보다,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1).

### 3.3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 (r=.48, p<.001), 돌봄 능력(r=.63, p<.001), 자기효능감(r=.53, p<.001) 모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N=203)

Variabl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r (p)
Self-leadership	.48 (.000***)
Caring ability	.63 (.000***)
Self-efficacy	.53 (.000***)

\*p<.05, \*\* p<.01, \*\*\* p<.001

### 3.4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는 일반적 특성 중 기존연구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셀프리더,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고 그 결과 공차한계는 .714~.96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37~1.40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937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오차항의 자기상관관계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β=0.14, p<.01),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β=0.23, p<.001), 돌봄 효능감이 높을수록(β=0.39,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0.28, p<.00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변수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N=203)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2.71	0.78		-3.28	.001**
Male (vs female)	0.52	0.18	0.14	2.89	.004**
Self-leadership	0.70	0.17	0.23	4.14	.000***
Caring ability	1.44	0.20	0.39	7.08	.000***
Self-efficacy	0.82	0.17	0.28	4.95	.000***

$R^2=.54$ , Adjusted  $R^2=.53$ ,  $F=57.12$ ,  $p=.000^{***}$

\* $p<.05$ , \*\*  $p<.01$ , \*\*\*  $p<.001$ 

#### 4. 논의

간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에서 개발되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된 Je와 Bang[6]의 연구(3.70점) 보다는 낮은 점수이나 Kwon과 Lee[20]의 연구(3.58점)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두 연구 모두에서 하위영역에서 자기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적 사고와 자기비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을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자기보상은 잘 하고 있으나 실패에 대한 성찰과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건설적인 사고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에서는 목표달성 시 결과를 통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과 피드백 과정이 포함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돌봄 능력은 6점 만점에 4.07점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돌봄 능력을 측정된 Pak의 연구[16]에서 나타난 4.07점과 유사하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5]인 4.04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이나 돌봄 능력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된 Pak의 연구[21] 결과와 미국 간호대학생[22]이나 간호사[23]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5.09점, 5.3점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간호교육이 돌봄 모델 보다는 의학 모델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며 임상 현장 또한 간호행위가 투약, 처치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 처방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Lee와 Pak (2016)의 주장[15]을 지지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Lee[19]의 연구결과(3.80점)보다 낮은 점수이며 동일도구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Chae의 연구[10]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남학생,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Lee와 Chae의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의 성별 비율은 1:1 수준이었고, 학년도 주로 대학 3,4학년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20% 미만이었다는 점과 1,2,3,4학년이 고르게 분포하였다는 점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영역별로는 자기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12.29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측정된 Park 과 Lee의 연구[24]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25],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평생교육과정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Park의 연구결과[12] 보다 낮은 점수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17]의 연구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대상자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해볼 때 중학생보다 대학생이, 대학생보다는 사회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그러나 중독이나 부적응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도전으로 보는 것보다 위협으로 보는 부정적 문제 지향성과 문제 상황에 충동적이고, 부주의하고, 회피하는 반응양식이 더 높은 반면,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이 낮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26].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존의 연구결과[3]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은 것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본 연구에는 남성의 비율이 20%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은 돌봄 능력( $\beta = -0.39, p < .001$ )이다. 돌봄 능력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돌봄 능력과 사회심리적 건강, 동료의 지지, 대인관계 능력이 돌봄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5]를 통해 예측해본다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중 부정적 문제 지향이나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의 부정적 대처양식을 감소시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돌봄 능력뿐 아니라 자기효능감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ta = 0.28, p < .001$ ).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회피적 행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갖고 대응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ta = 0.23, p < .001$ ).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셀프리더십이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9,10]를 통해 예측해본다면, 셀프리더십을 구성하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적 요인들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 중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에 성별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 $\beta = 0.14, p = .004$ )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3]를 지지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성별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은 인간의 동기와 정서와 관련된 변수로서 이러한 결과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동기와 정서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27]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하되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아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건설적,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 모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의학에 기초를 둔 교육과 대상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반응에 초점을 둔 돌봄 중심의 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한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가지며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에 대한 측정이 자가설문으로 진행되어 간호대상자 느끼는 돌봄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 융복합적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융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돌봄 능력,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주요한 영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성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 및 정서적 측면의 균형을 갖춘 융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A. W. Finkelman, (2001). Problem-solving, Decision-

- making, and Critical Thinking: How do they mix and why bother?. *Home Care Provid*, 6(6), 194-199.
- [2] T. J. D'Zurilla & A. M. Nezu.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3] Y. S. Choi. (2002).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13-428.
- [4]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10.5762/KAIS.2017.18.5.617
- [5] J. I. Kim.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574-583.  
DOI: KAIS.2018.19.12.574
- [6] N. J. Je & S. Y. Bang. (2018).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Students on Self Leade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825-835.  
DOI: KAIS.2018.19.12.825
- [7] J. Watson. (2006). Caring Theory as Ethical Guide to Administrative and Clinical Practices. *JONA'S Healthcare Law, Ethic and Regulation*, 8(3), 87-93.  
DOI : 10.1097/00006216-200601000-00008
- [8]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and Company.
- [9] S. Y. Yun & M.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 [10] M. O. Chae. (2019).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147-156.  
DOI : 10.14400/JDC.2019.17.7.147
- [11] T. J. D'Zurilla & A. M. Nezu. (2007), *Problem - Solving Therapy*,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LC.
- [12] K. H. Park. (2009). The Influence of Social Problem Solving on Job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ntion to Turnover, and Job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4), 2109-2137.
- [13] C. C. Manz.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J ;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14]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15] J. Y. Lee & S. Y. Pak. (2016).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461-470.  
DOI : 10.11111/jkana.2016.22.5.461
- [16] S. Y. Pak. (2018). Impact of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79-387.  
DOI : 10.14400/JDC.2018.16.10.379
- [17] D. H. Joung. (2013). *The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
- [18] A. Y. Kim.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 - tolerance and Its Correlat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19] J. J. Lee. (2016).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Gyeonggido.
- [20] J. H. Kim, K. J. Kwon & S. H.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295-307.  
DOI: 10.14400/JDC.2017.15.4.295
- [21] S. Y. Pak. (2015).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Improving Caring Abilities in Clinical Practice and Effects of The Program's Ap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22] J. Sadler. (2003). A Pilot Study to Measure the Caring 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4(6), 295-299.
- [23] C. Coates. (1997).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Advanced Practice Nursing Quarterly*, 3(1), 53-59.
- [24] E. H. Park & E. T. Lee. (2013).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4(4), 5-30.
- [25] M. M. Kim, Y. S. Yeong & Y. H. Kwon. (2015).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1284-1292.  
DOI: KAIS.2015.16.2.1284
- [26] K. H. Jang & I. H. Cho. (2014). Undergraduates Anger coping Behavior, Social Problem Solving and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Mindfulnes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61, 245-272.
- [27] Y. S. Choi. (2003). Deficit of Social Problem-Solving for Alcoholic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27-934.



박 소 영(So-Young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및 참여적 의사결정, 간호윤리, 간호교육
- E-Mail : 09525@shinhan.ac.kr